SILAS FONG

실라스 퐁 | 작업 자료집 2008-2026

사진, 설치, 영상,
퍼포먼스, 출판

작품, 전시,
진행 중인 프로젝트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2020

계속 변화하는 작업

2008-2026

이 포트폴리오는 사진, 영상, 설치, 퍼포먼스, 출판을 오가며 계속 변화하는 작업을 살펴본다. 현재의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이전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가되, 진행 중인 연작은 함께 묶고 각 챕터의 연도를 표시했다. 서로 다른 방법은 공존하고 다시 나타난다. 이 순서는 특정 매체나 주제, 도착점을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자료집 읽기

프로젝트의 가장 최근 기록 연도에서 이전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행 중인 연작은 함께 묶고 각 챕터와 이후 버전의 연도를 표시했다. 이는 중요도의 순위가 아니라 변화하는 작업을 읽는 하나의 경로다. 더 많은 이미지와 영상, 글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 이동, 온라인에서 바라보기를 다룬 초기 작업에서 시간과 주의는 사회적 차원을 얻는다. 2008년의 Art Map은 이미 미술계의 관계를 기록한다. 이후 기억과 유급 노동, 여행, 이미지의 물질적 형식은 만남을 조직하는 다른 방법을 만든다. 책과 사진, 방과 지시문은 각각 관객에게 서로 다른 것을 요청한다.

School of Artists Development는 전문적 언어와 자기 연출, 제도적 기대를 수업과 상품으로 명시한다. SAD 키친과 빵소리에서는 이러한 관심 안에서, 또 그와 나란히 요리와 배움, 환대의 방식이 발전한다. 앞선 질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의 조건과 노동의 시간, 참여의 조건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다. 가족의 참여는 기록된 만남에 실제로 함께한 경우 명시한다.

목차

1 / 2

빵소리 05

키친 노트: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13

SAD 키친: Oi! 가이드 16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빵학과 19

예술 홈쇼핑의 개발과 응용 22

SAD 키친 23

SAD Info Days 2021 25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26

Art Recycle Bin 30

SAD Info Days 31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Art English 33

Artist Portrait Basics 34

Vocabulary: Understanding Your Art Professor and Make Life Easier 35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36

You Come Too 37

Small Talk 38

Enjoy Your Meal! 39

Ulsan One Minute 40

In-Attention 41

Television, Photographs, Table, Stone 43

Piccolominstr. 316 44

There Is No Time 48

목차

2 / 2

Timesheets 49

Under the Linden 50

Afternoons 51

Flat D 52

퀼른 미디어예술대학 출석 보고서 54

마인페른부스를 위한 승객 보고서 55

루드비히 미술관을 위한 업무 보고서 56

Interview Service Provider 58

Sitcom 59

Memoriescape 62

Writing to Reach You 64

Stolen Times for Sale 65

Working in Hollywood 67

Towards the Air 68

Upon the Escalator 69

In Some Seconds 70

Waiting 71

Anonymity 72

Art Map 74

Surveil the Strangers 75

When the Door Opens 76

빵소리

2023-진행 중 | 배움, 제빵, 교환, 퍼포먼스



제빵 퍼포먼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광주, 2023.

가족을 위해 빵을 굽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제빵사와 음식 장인을 찾아가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며, 그 만남을 퍼포먼스와 교환, 식사로 이어간다. 빵에는 이 과정에 들인 시간과 노동이 남는다.

아내와 아들은 일부 배움의 방문과 공동 식사에 함께했다. 이들의 참여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일부다. 여행과 레지던시, 작품 제작 중에도 가족의 일상과 돌봄은 계속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광주: 배움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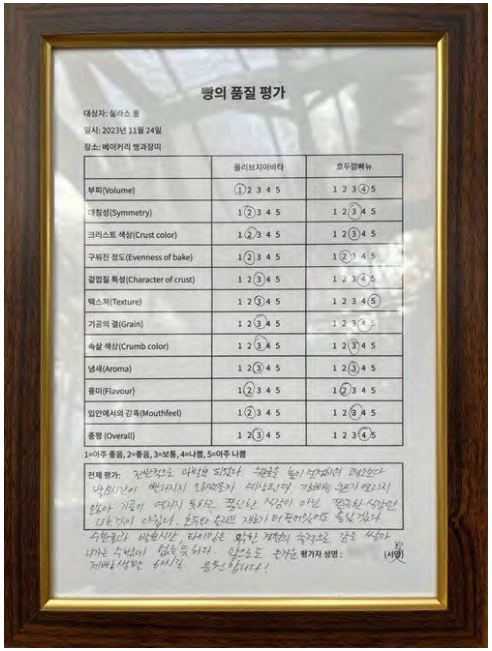
2023 | 빵과장미 /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광주에서 제빵을 배운 빵과장미.



작가가 직접 제작하고 제빵사가 서명한 수료증.



작가가 직접 제작하고 제빵사가 작성·서명한 빵 평가서.

빵과장미에서 치아바타와 캉파뉴 만드는 법을 배웠다. 수료증과 빵 평가서는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뒤, 가르쳐 준 제빵사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기술 교환을 기록하는 문서다. 이후 연습과 레지던시의 제빵 퍼포먼스로 배움을 이어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프랑크푸르트: 식탁을 사이에 둔 배움

2024 | 슈테델슐레, 프랑크푸르트



호신 부흘루가 작가 제작 수료증에 서명하는 모습, 프랑크푸르트, 2024.



배움의 기록: 작가가 디자인·제작하고 가르쳐 준 셰프가 서명한 수료증.

슈테델슐레 구내식당의 총주방장 호신 부흘루에게 사워도 호밀빵 만드는 법을 배웠다.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수료증에 그가 서명했다. 특정한 배움과 관계를 기록하는 문서이며, 미술대학이 발급한 자격증이 아니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점심으로 이어진 초대

프랑크푸르트 | 2024년 7월



호신 부흘루가 준비한 점심을 아내, 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 프랑크푸르트, 2024년 7월.

배움은 호신 부흘루가 준비한 점심으로 이어졌고, 아내와 아들도 함께했다. 이들의 존재는 환대를 주고받는 과정의 일부다.

나에게 가족 돌봄과 예술 활동은 분리된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움의 방문에는 함께하는 시간과 가족이 같이 이동하기 위한 실제 준비가 따른다. 빵이 놓인 식탁에서 나는 셰프에게 배우는 예술가이면서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오키나와: 배움을 이어가기

2024 | 르 프레타포르테, 나하



나하 르 프레타포르테의 제빵사와 함께.



작가 제작 수료증. 가르쳐 준 제빵사의 서명.



빵집에서 배운 뒤 혼자 해 본 첫 바게트 시도.

나하의 동네 빵집에서 바게트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 수료증 역시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으며, 가르쳐 준 제빵사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후 혼자 해 본 첫 제빵 시도는 문서만큼 중요하다. 반복과 조정, 그리고 만들어 나누는 음식을 통해 배움은 계속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챕터: 밀 배우기

2026 | 사부작 레지던시, 양평



지역 어르신들과 빵과 잼을 나누는 자리, 양평, 2026. 아들도 함께했다.



레지던시 중 팀화요와 함께, 양평, 2026.

양평에서는 한국에서 재배한 밀을 통해 재료 뒤에 있는 사람과 노동으로 관심을 넓혔다. Hannah Uhm 셰프의 소개로 팀화요의 농사 활동에 참여하고, 직접 만든 빵과 잼을 지역 어르신들과 나누었다. 아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 장에서는 반죽 실험이 농사, 경청, 함께 먹는 시간과 이어진다. 가족은 고립된 예술가의 배경이 아니라 실제 만남에 참여한 사람으로 기록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밀 배우기: 작업실의 실험

2023-진행 중 | 배움, 제빵, 교환, 퍼포먼스



윈도페인 테스트: 반죽을 얇은 막으로 늘려 보는 과정.



틀 밖으로 넘친 제빵 실험, 양평, 2026.

한국산 밀과 호밀, 통밀로 여러 차례 시도하며 어르신들의 입맛을 생각한 부드러운 사워도 식빵을 만들어 갔다. 반죽을 얇은 막으로 늘려 구조를 확인한다. 사진에는 완성된 빵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익힌 동작과 틀을 넘친 결과도 함께 남긴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빵소리

밀 배우기: 만들고 나누기

2023-진행 중 | 배움, 제빵, 교환, 퍼포먼스



오빈리 어르신들과 빵을 나누는 자리, 2026년 7월 30일.



빵과 함께 나눌 잼을 만드는 과정.

7월 30일, 아들과 함께 오빈리 어르신들에게 빵과 블루베리 잼을 나누었다. 준비하고 자르고 건네는 과정에서 제빵 실험은 함께하는 만남이 된다. 빵과 잼은 실제로 먹고 사용하기 위해 만들며, 사진은 작업대에서 식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따라간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키친 노트: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 2025 | 대추무파인아트



음식 나눔 퍼포먼스, 키친 노트, 강릉, 2025.

강릉의 제빵사 두 명과 소시지 장인 한 명을 만난 세 번의 경험이 출발점이다. 직접 배운 기술을 연습하고, 그 관계를 도구와 자작 패키지, 수료증, 드로잉, 음식 나눔으로 전시장에 옮겼다.

이 만남에서 배운 빵과 뉘른베르크식 소시지에 더해, 한국에 살면서 스스로 익힌 홍콩식 에그타르트도 선보였다. 공식 자격 체계 밖에서 지식과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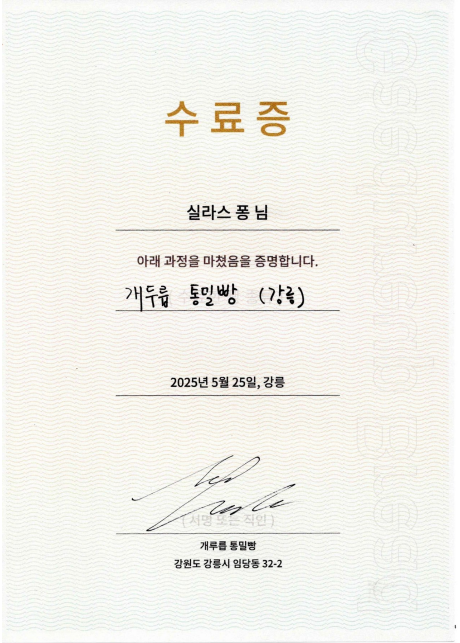
키친 노트: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문서

키친 노트 | 2025



강릉의 지역 빵집을 찾은 배움의 방문. 아들도 함께했다.



개두릅 통밀빵 배움을 기록한 작가 제작 수료증. 제빵사의 서명.



뉘른베르크식 소시지 배움을 기록한 작가 제작 수료증. 소시지 장인의 서명.

수료증은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으며, 기술을 가르쳐 준 장인들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이름과 서명은 실제 만남에 배움의 근거를 둔다. 공인 교육기관의 자격증이 아니라, 교환을 기록하는 자작 문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키친 노트: 강릉에서의 세 번의 시도

도구, 패키지, 흔적

키친 노트 | 설치, 프린트, 드로잉 | 2025



키친 노트 전시 전경, 대추무파인아트, 2025.



SAD 키친 셰프 키트, 2025.



배움과 연습을 통해 만든 빵 한 조각을 잉크 드로잉으로 옮긴 작업.

전시장에는 실제 조리 도구와 배움을 약속하는 상품의 형식이 함께 놓인다. 셰프 키트가 제품의 언어를 빌린다면, 빵 드로잉은 구체적인 연습의 흔적을 남긴다. 드로잉 속 단면은 강릉에서 만난 장인들에게 배운 뒤 연습해 만든 빵 한 조각이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키친: Oi! 가이드

위로 음식 여정 | 2023-2024 | Oi!, 홍콩



Oi!의 창고를 3D 프린트 오브제와 애니메이션, 인쇄물이 놓인 주방 같은 환경으로 바꾸었다. 관객은 음식과 감정에 관한 숨겨진 질문에 답하고, 노스 포인트 지역의 맞춤형 위로 음식 가이드를 받는다.

음식은 만남을 위한 체계가 된다. 개인의 감정이 동네의 장소와 이어지고, 원하는 관객은 푸드 컴패니언으로 등록해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할 가능성을 연다.

SAD 키친: Oi! 가이드, Oi!, 홍콩.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키친: Oi! 가이드

주방에 숨겨진 선택

Oi! 가이드 | 참여형 설치



설치 세부와 관객의 참여 장치.



설치의 테이블 위에 놓인 3D 프린트 음식 모형.

익숙한 주방의 형태 속에 질문과 선택의 계기가 숨겨져 있다. 관객의 동선은 정해진 수업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 된다. 오브제와 이미지, 인쇄된 가이드는 전시장의 경험을 바깥의 음식과 장소로 연결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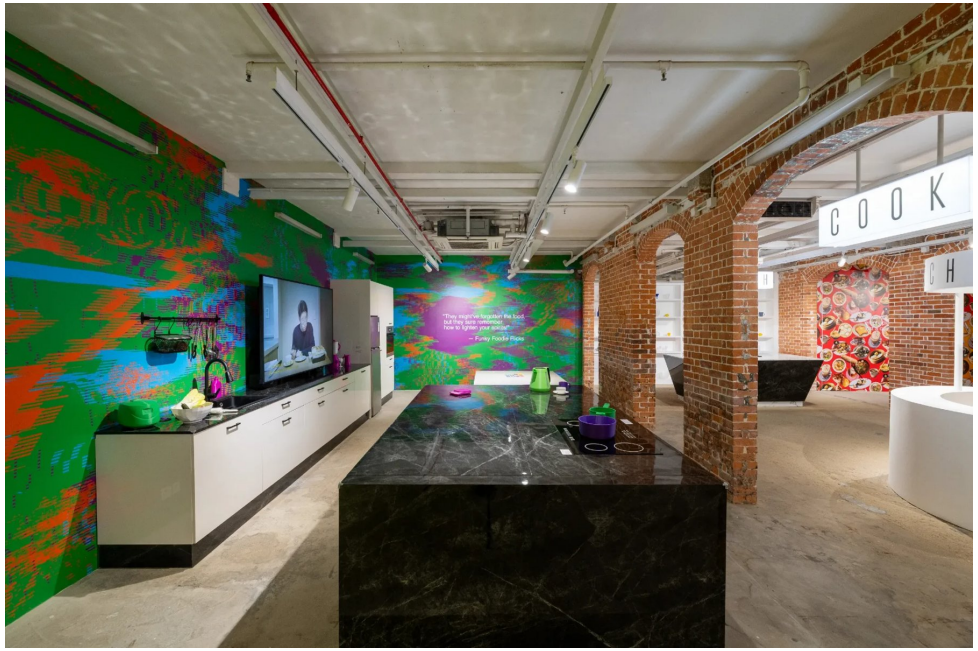
SAD 키친: Oi! 가이드

가이드에서 함께하는 식사로

Oi! 가이드 | 노스포인트, 홍콩



SAD 키친: Oi! 가이드의 관객 참여.



설치 세부, Oi!, 홍콩. 그래픽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서희선, 크리스 찬, Studio Hik.

위로 음식 가이드는 전시장 밖에서 행동해 보라는 제안이다. 음식에 얽힌 개인의 기억을 동네의 사회적 삶과 연결하며, 유희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돌봄과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빵학과

2024 | 갤러리 조선, 서울



빵학과 전시 전경, 갤러리 조선, 2024.

가상의 SAD 학교는 제빵을 성취의 교육과정으로 바꾼다. 참여자는 과제를 수행하고 전문 용어를 접하며 증명서를 받지만, 무엇을 배웠는지는 불확실하다.

자격과 측정 가능한 결과가 호기심을 밀어내는 교육 체계를 풍자한다. 누가 성공을 규정하는지, 시험은 무엇을 측정하는지, 예술의 배움을 외부 기준 안에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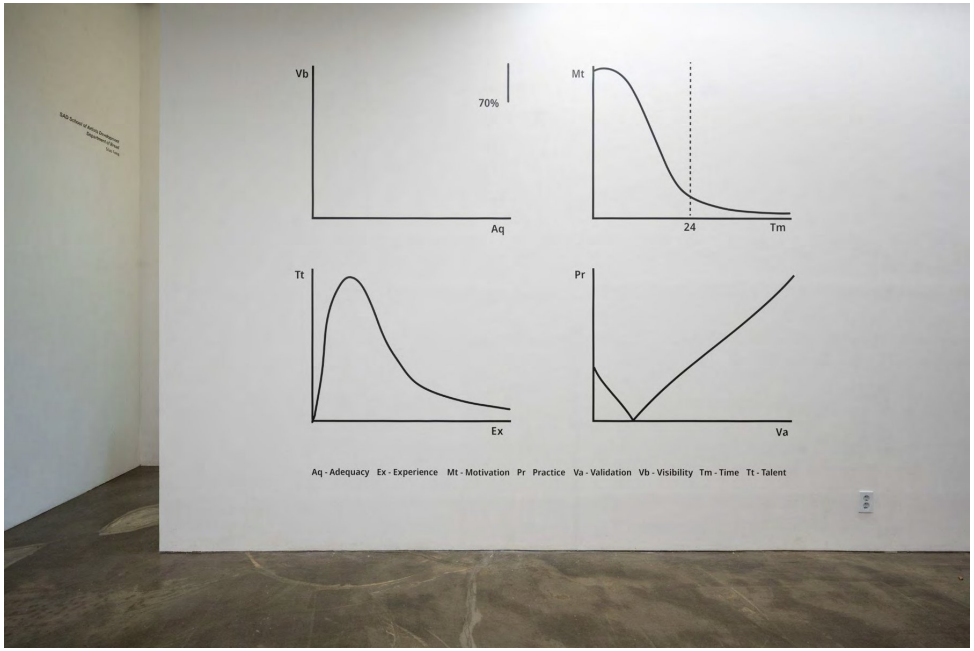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빵학과

인정을 위한 연습

빵학과 | 참여형 설치 | 2024



전시장에 설치된 워크숍 장치와 안내 영상.



교육과 평가의 권위를 빌리는 도표.

Flourglass와 Shape and Score Clinic은 실기 훈련의 형식을 빌린다. 반복, 마감, 규정된 정밀함을 통해 일상의 기술은 제도적 시험으로 바뀐다. 약속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도 참여와 지속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빵학과

프로젝트 내 작품: Stretch

2024 | 생성 이미지를 사진 프린트로 제시



Stretch 프린트와 워크숍 재료가 함께 놓인 전시 전경.



제도적·가상적 용어 사이에 놓인 Stretch.

Stretch는 요가를 연상시키는 자세의 몸과 과장된 반죽을 결합한다. 불가능한 유연함은 규정된 수행과 열려 있는 상상력 사이의 충돌을 드러낸다. 이 이미지들은 생성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이며, 전시 사진은 그것이 전시장에 제시된 방식을 기록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예술 홈쇼핑의 개발과 응용

2020 설치 / 2023 영상 | SAD Art Rental이라는 이름으로도 기록



진행자가 있는 홈쇼핑 세트, 청주, 2020.



2023년 영상 버전의 스틸.

텔레비전 홈쇼핑 세트가 작품 대여를 위한 쇼룸이 된다. 진행자는 편리함과 특별 혜택, 평범한 방을 갤러리로 바꾼다는 약속을 사용한다. 설치와 이후의 영상은 SAD의 직업훈련을 미술의 홍보와 유통으로 확장하며 판매의 수행 자체를 수업으로 만든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키친

2021-2022 | 영상과 설치 | 청주시립미술관, 2022



해외에 살았던 작가들에게 겪은 어려움과 위로가 되는 음식에 관해 물었다. 그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은 듣고 응답하는 방식이 된다. 주방 설치는 영상을 요리의 실제 환경과 나란히 두어 SAD의 서비스와 교육 형식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장을 연다.

SAD 키친 설치 전경, 청주시립미술관, 2022.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키친

비넨슈티히

2021 | UHD 영상, 사운드, 컬러 | 10분 46초



비넨슈티히 영상 스틸, 2021.



비넨슈티히 영상 스틸, 2021.

비넨슈티히는 SAD 키친 설치 안에서 제시된다.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행위가 해외 생활에 관한 작가의 이야기에 대한 응답이 된다. 실제 노동과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함께 놓인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Info Days 2021

2021 | 홍콩 시각예술센터 | medialogue 프로그램



SAD Info Days 2021. 사진 제공: 홍콩 시각예술센터.



Social Smoker's Box, 2021.

가상 학교가 홍콩 시각예술센터의 공공 공간에 학교와 상점, 약속의 집합으로 들어선다. Social Smoker's Box는 인맥 형성을 배울 수 있는 생존 기술로 제시한다. 풍수와 이미지 디자인에 관한 세미나로 예술가의 경력을 둘러싼 사회적·시각적 관습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2020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Art on Air 홈쇼핑 설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20.

SAD는 미술계를 직업훈련의 현장으로 다룬다. 가상의 학교가 제공하는 가이드와 상품, 연습을 통해 예술가의 성공 관습이 교육과정으로 바뀐다. 청주에서는 예술가의 이미지와 사교 기술에서 작품의 홍보와 판매, 대여로 질문을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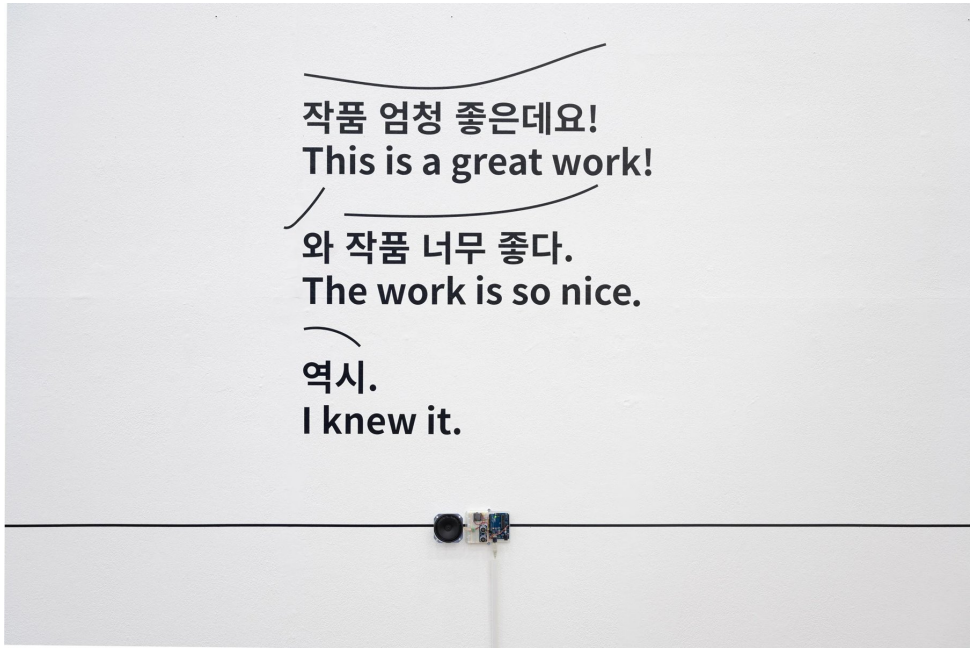
홈쇼핑 세트는 텔레비전 판매 방송의 설득 언어를 빌려, 예술의 가치가 포장되고 거래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인사가 상품이 될 때

2020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Greetings for Artists, 벽면 텍스트와 상호작용 장치, 2020.



Greeting Tote, 면 가방에 실크스크린, 2020.

Greetings for Artists는 익숙한 칭찬의 말을 벽면의 상호작용 언어 수업으로 만든다. Greeting Tote는 이러한 관습을 휴대할 수 있는 사물로 옮긴다. 칭찬과 인정, 전문적 소속을 몸에 걸치고 드러낼 수 있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예술가가 되기 위한 장비

2020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Artist's Plant와 Artist's Tent, 설치 전경, 2020.



Media Artist Starter Kit, 실험실 장비와 진열, 2020.

Artist's Tent와 Artist's Plant는 상점 곁의 밝은 전시장을 차지한다. Media Artist Starter Kit는 실험실 장비의 모습을 빌린다. 가상의 학교에서 상품처럼 진열된 사물은 예술가가 되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나란히 놓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학교, 상점, 판매의 말

2020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sadshop,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20.



상품군으로 진열된 SAD Guides.

상점은 개별 상품을 하나의 진열 안에 모은다. 조언과 인쇄 가이드, 물건이 전문적 교육과정의 언어를 공유한다. 첫 페이지의 홈쇼핑 세트는 이러한 배치를 예술의 판매와 대여를 수행하는 장면으로 확장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rt Recycle Bin

2019 | 아크릴, 스테인리스 스틸, 비닐 | 80 × 50 × 30 cm



수집된 인쇄물이 담긴 Art Recycle Bin.



작가가 Art Recycle Bin에 명함을 넣는 모습.

아크릴 수거함은 미술 관람을 마친 관객에게 전단, 안내도, 명함을 넣도록 권한다. 주의를 이끌도록 만든 인쇄물이 남은 것들로 쌓인다. 버리기와 모으기는 전시의 가장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의식이 되어 정보의 유통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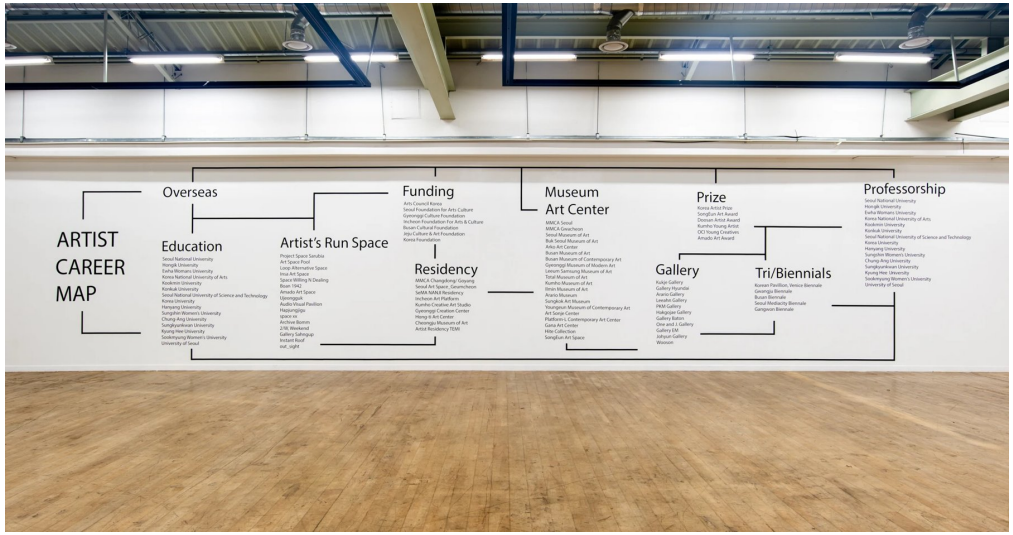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Info Days

2019 | 개인전 | 서울시립 금천예술공장



관객에게 Practical Application Basics를 소개하는 모습, 2019.



전시장 벽에 펼친 Artist Career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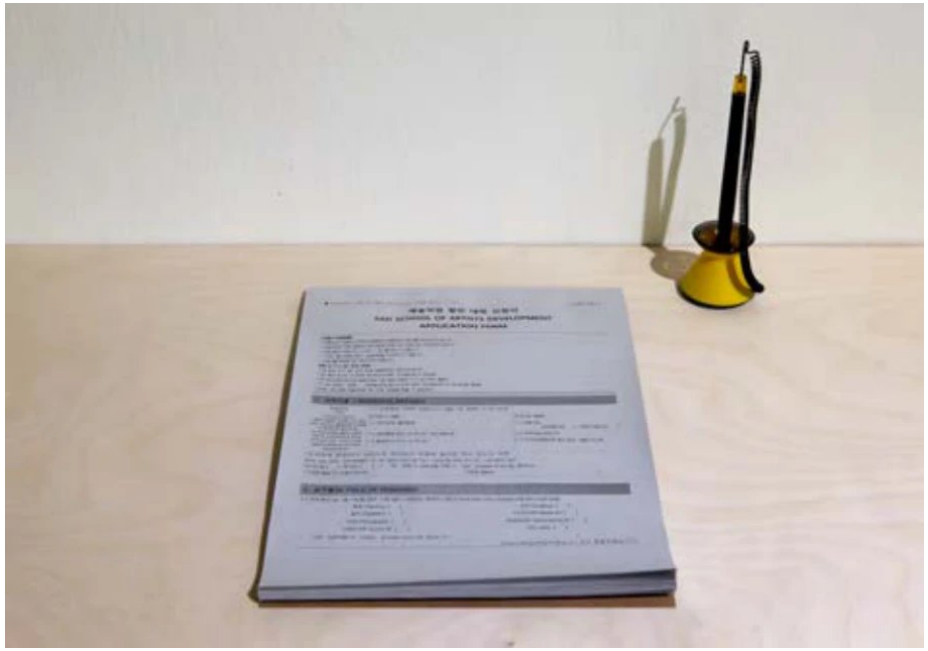
가상의 직업학교인 School of Artists Development가 초상 촬영, 지원서 연습, 진로 지도, 미술 언어 안내를 참여적 상황으로 만든다. 전문성 개발의 약속을 교육의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신진 작가에게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요구하는지 드러낸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AD Info Days

지원서와 대화

2019 | 인쇄한 서식, 선반, 펜, 공개적 만남



지원서와 펜.



청년 작가와 미술대학 졸업생을 위한 포트폴리오 상담.

Practical Application Basics는 하루 한 건의 지원서를 생존 연습으로 제안한다. 대화와 포트폴리오 상담은 전시의 질문을 작가와 기획자, 관객의 실제 만남으로 이어간다. 조언과 평가는 가상 학교의 주제이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Art English

2019 | LED 디스플레이와 미술 잡지 | SAD Info Days



전시장에 설치한 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지탱하는 잡지들.

LED 패널은 미술 전문용어를 눈길을 끌지만 읽기 어려운 간판으로 제시한다. 레지던시 자료실에서 빌린 미술 잡지 더미가 패널을 받친다. 관객은 잡지를 가져갈 수 있지만 지지 구조를 흔들 수 있다. 권위의 언어는 시각적 존재와 불안정한 물질 구조를 함께 갖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rtist Portrait Basics

2019 | 인쇄한 배경, 카메라, 플래시, 초상 촬영



설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상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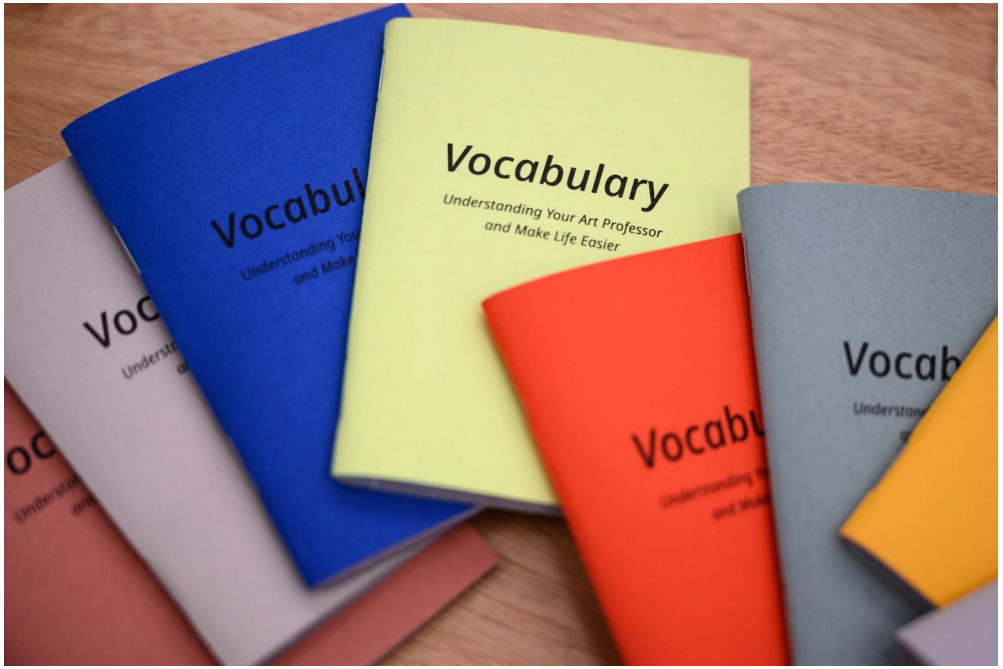
인쇄한 스튜디오 배경.

이상적인 스튜디오 배경과 초상 촬영은 성공한 예술가의 이미지를 약속한다. 높은 천장과 큰 창문, 적절한 자세를 사진을 위해 빌릴 수 있다. 전문적 자기 연출을 실습으로 만들며 이미지가 생산성과 잠재력, 정당성을 어떻게 대신하는지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Vocabulary: Understanding Your Art Professor and Make Life Easier

2019 | 아티스트 진 | A6, 48쪽, 표지 10색



Vocabulary의 여러 표지.



색색의 표지와 함께 펼친 책.

미술대학 비평 수업에서 쓰는 표현을 모은 주머니 책이다. 교수의 조언을 더 빨리 이해하는 방법을 약속하면서 익숙한 말 속에 안심과 판단, 불확실성이 어떻게 오가는지 드러낸다. Small Talk의 대본과 안내 형식을 미술교육의 상황으로 이어간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2018 | 전시와 FUSE 레지던시 | 비디오태지, 홍콩



설치 전경, 비디오태지, 2018.



전시 안의 사진과 사물들.

느리게 움직이는 영상, 사진, 사물과 지시문으로 일상을 마주하는 상황을 만든다. 겉모습이 같은 세 권의 도록에 서로 다른 글을 넣어, 관객의 선택이 같은 전시에 진입하는 경로를 바꾸게 한다. 개인적 이미지는 방과 그 안의 시간, 안내를 따르는 행위를 통해 다른 독해에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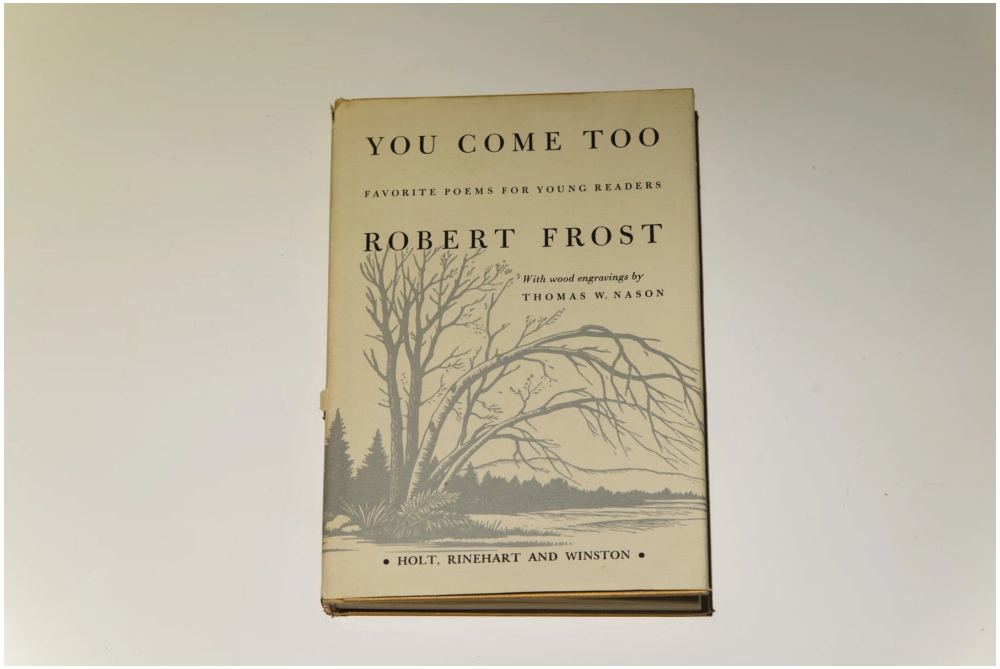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You Come Too

2018 | 책 안에 삽입한 혼합 매체 | 21.1 × 14.5 × 1.8 cm



책에 삽입한 사진.



You Come Too, 개입한 책.

로버트 프로스트의 You Come Too 한 권에 사진과 여러 재료를 끼워 넣었다. 기존의 책은 손으로 다루고 페이지를 넘기며 또 다른 기억과 연상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에 포함된 작업이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mall Talk

2018 | 완벽한 데이트와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대화 예문 | 아티스트 북



사교적 만남에서 읽는 Small Talk.



책 안의 대화 예문.

대화가 끊길 때 미술계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대사를 모았다. 술자리나 모임에서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이다. 유용해 보이는 형식 속에서 사교적 능숙함과 야망, 전문적 소속이 연습할 수 있는 대본이 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Enjoy Your Meal!

2018 | 의류, 마네킹, 플라스틱 음식 모형 | 두들스, 홍콩



Enjoy Your Meal! 설치 세부.



레스토랑 공간 안의 인물.

고급 레스토랑 안에서 한 인물이 음식 쟁반 위에 엎드려 있다. 홍콩의 주거난 속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잠자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참조한다. 두들스라는 장소 안에 이 장면을 두어 식사와 미술 전시의 공간에 휴식과 피로, 도시 공간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함께 놓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Ulsan One Minute

2018 | LED 디스플레이와 금속 스탠드 |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참가자는 시계를 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1분을 센다. 실제 측정한 길이를 느린 순서로 정렬하고, 태화강 공원의 공공 시계에 개인별 1분을 제시한다. 속도에 보상하는 일반적인 경기 규칙을 뒤집으며 개인의 속도가 공적 시간과 성공의 척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묻는다.

Ulsan One Minute, 태화강 공원, 2018. 작가의 작품 페이지에서 재현.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In-Attention

2017 | 갤러리 EXIT, 홍콩



In-Attention 전시 전경, 갤러리 EXIT, 2017.

카메라 테스트 차트와 프린터 점검 패턴, 기술적 사물들이 주의력을 살펴보는 도구가 된다. 기계를 조정하기 위한 패턴은 사람의 눈에도 집중을 요구한다. 정보가 넘치는 환경에서 평정과 집중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다.

영상과 사진 프린트, 광학 기구, 침대를 통해 몸의 경험을 기술적 조정의 언어와 나란히 놓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In-Attention

몸으로 마주하는 주의력

In-Attention | 2017



사진 투영, 벽면 투사, 2017.



Grain Focus, 라이트 패널, 필름 네거티브, 광학 기구, 2017.

사진 투영은 촬영된 방을 벽 위의 작은 이미지로 제시한다. Grain Focus는 필름 네거티브와 확대 기구를 결합한다. 두 작업은 바라보기를 크기와 지속시간, 몸의 위치를 지닌 행위로 만든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Television, Photographs, Table, Stone

2017 | 설치 | 텔레비전, 영상, 사진 프린트, 천, 돌



Television, Photographs, Table, Stone 설치 전경.



사진 표면 위에 놓인 돌.

텔레비전과 사진 표면, 탁자, 돌이 하나의 설치를 이룬다. 인쇄된 그림자는 전시 공간의 실제 빛과 그림자를 만난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며 이미지와 사물의 물리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Piccolominist r. 316

2016 | 개인전 | 괴테 갤러리 및 블랙박스 스튜디오, 홍콩



Piccolominist r. 316 전시 전경, 주홍콩독일문화원, 2016.

책과 사진, 보고서, 투사 이미지를 통해 일상의 시간을 전시장에 가져온다. Afternoons와 루드비히 미술관을 위한 업무 보고서 등의 작업은 기다림과 바라보기, 기록의 순간들을 오간다.

하나의 완결된 사물보다 여러 주의의 방식이 전시장 안에서 만나도록 구성했다.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에 대한 초기 관심이 이후 예술 노동과 배움,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보여 준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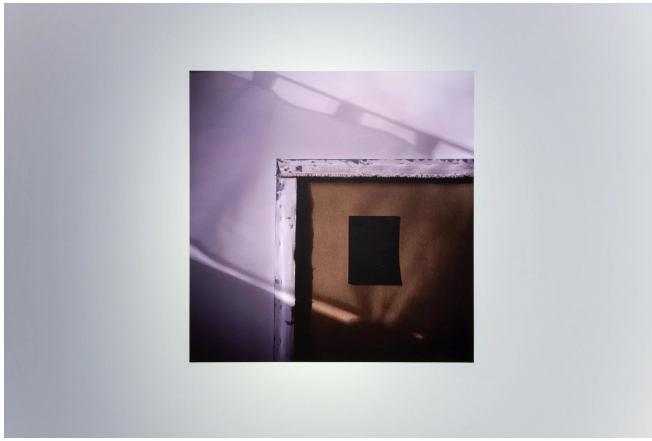
Piccolominstr. 316

개별 작품으로서의 사진

2016 | 개인전 | 괴테 갤러리 및 블랙박스 스튜디오, 홍콩



Photographs, 2016. 벽지에 디지털 프린트, 60 x 60 cm.



Photographs, 2016. 벽지에 디지털 프린트, 60 x 60 cm.



Photographs, 2016. 벽지에 디지털 프린트, 60 x 60 cm.

벽지에 출력한 세 사진은 불이 켜진 실내와 창문, 안개 속 나무를 전시장으로 가져온다. 각 이미지는 서로 다른 장소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인쇄된 표면을 통해 전시 벽의 일부가 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Piccolominist r. 316

보고서와 변하는 빛

Piccolominist r. 316 | 2016



소책자 테이블 위에 설치된 루드비히 미술관을 위한 업무 보고서.



Light from Window, 권혜경이 그린 벽화.

기록된 예술가의 노동 시간은 인쇄되거나 그려진 빛과 대화를 나눈다. Light from Window는 권혜경이 그렸다. 보고서와 책, 이미지, 빛의 흔적은 서로 다른 형식을 유지하며 함께 놓인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Piccolominist r. 316

읽기와 들어가기

2016 | 개인전 | 괴테 갤러리 및 블랙박스 스튜디오, 홍콩



마인페른부스 승객 보고서, 아코디언 출판물.



In the Room, 투사 영상 설치.

마인페른부스 승객 보고서는 사진과 관찰이 이어지는 아코디언 형식으로 펼쳐진다. In the Room은 투사 영상과 소리를 사용한다. 사진과 보고서 곁에서 두 작품은 바라보는 시간과 위치를 다르게 제안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There Is No Time

2016 | 개인전 | 홍티아트센터, 부산



There Is No Time 설치 전경, 홍티아트센터.



전시 안의 햇빛과 사물들.

부산의 공업 지역에서 레지던시를 하며 낯선 환경이 시간 감각을 바꾸었다. 홍콩에서 익숙했던 공간보다 훨씬 큰 스튜디오에 햇빛이 움직였다. 사진과 영상, 사물은 공기와 그림자, 일상의 세부를 살펴보며 다른 곳에 머무는 경험을 집의 기억과 연결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Timesheets

2016 | 아티스트 북 | 디지털 프린트, 하드커버, 80쪽



Timesheets 표지, 2016.



책 안의 사진들.

Oi!와의 협업에서 특정한 목적 없이 공간과 주변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제안했다. 이 비생산적인 시간에 작가비가 지급되었다. 책은 계약의 일부와 함께 투입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며, 노동으로 측정되는 시간을 배회하고 바라보는 경험과 연결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Under the Linden

2016 | 롤 블라인드와 반투명 아크릴판에 인쇄



Under the Linden 설치 전경.



반사된 이미지와 인쇄된 탁자 표면.

빛과 나무, 탁자의 이미지는 조용한 가로수길의 방과 홍콩 고층 건물 사이의 방에 관한 기억을 모은다. 인쇄된 표면과 반사된 빛, 전시의 방은 기억 속 환경을 새로운 공간 관계 안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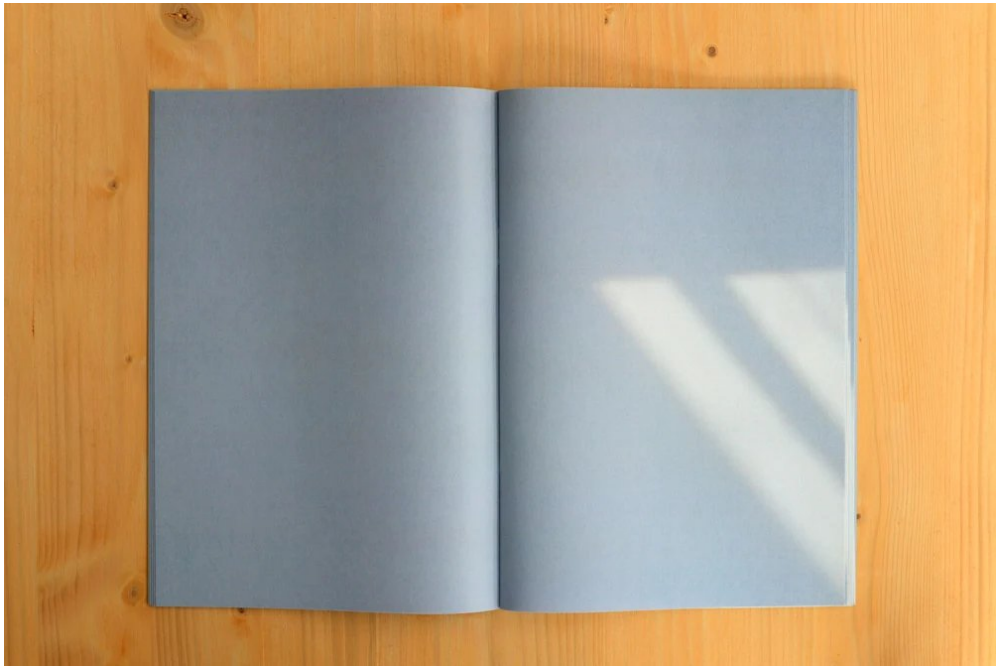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fternoons

2015 | 아티스트 북 20권 | 합성섬유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



Afternoons, 책과 열람대.



Afternoons, 빛이 인쇄된 책의 펼침면.

잎 수가 다른 책들의 페이지 위에 인쇄된 빛이 놓인다. 페이지를 넘기면 촬영된 빛, 종이의 물질적 표면, 방 안의 실제 빛 사이의 관계가 바뀐다. 익숙한 독서 행위는 통상적인 문자 서사 없이도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는 이미지와의 만남이 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Flat D

2015 | 시간 기반의 방 설치 | 홍콩아트센터



입구와 소지품 보관함 옆에 앉은 관리자, Flat D, 2015.

관리자는 관객에게 휴대전화와 카메라, 책 등 소지품을 밖에 두고 한 명씩 방에 들어갈 것을 권한다. 조건에 동의한 관객이 입장하면 문을 잠그고, 10분 뒤 다시 연다.

일상의 요구와 주의를 흩뜨리는 것들로부터 잠시 떨어진 시간을 만든다. 방 안의 고독한 경험은 초대되고, 규정되며, 시간을 재는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Flat D

방 안에서의 10분

Flat D | 300 × 220 × 250 cm | 10분



Flat D 내부, 홍콩아트센터, 2015.

변하는 빛과 에어컨, 평범한 방의 물질적 세부가 시간을 두고 감각된다. 이 작업은 홍콩아트센터에 설치한 Flat D이며, 쾰른 미디어예술대학에서 열린 개인전 Flat D, 6/F, Aldrich Garden과 구별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쾰른 미디어예술대학 출석 보고서

2015 | 사진과 텍스트 신문 | 양면 인쇄, 100부



Attendance Report 신문 이미지.



쾰른 미디어예술대학에 놓인 신문.

사진과 글로 된 관찰을 출석 보고서의 형식으로 만든다. 신문은 쾰른 미디어예술대학에서 배포되어,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을 미술대학의 일상적 유통 안으로 가져간다. 액자 버전은 쾰른 CASE의 개인전 Flat D, 6/F, Aldrich Garden에서 전시했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마인페른부스를 위한 승객 보고서

2015 | 사진과 텍스트 아코디언형 출판물, 나무 선반



Passenger Report for Meinfernbus의 표제면과 아코디언형 출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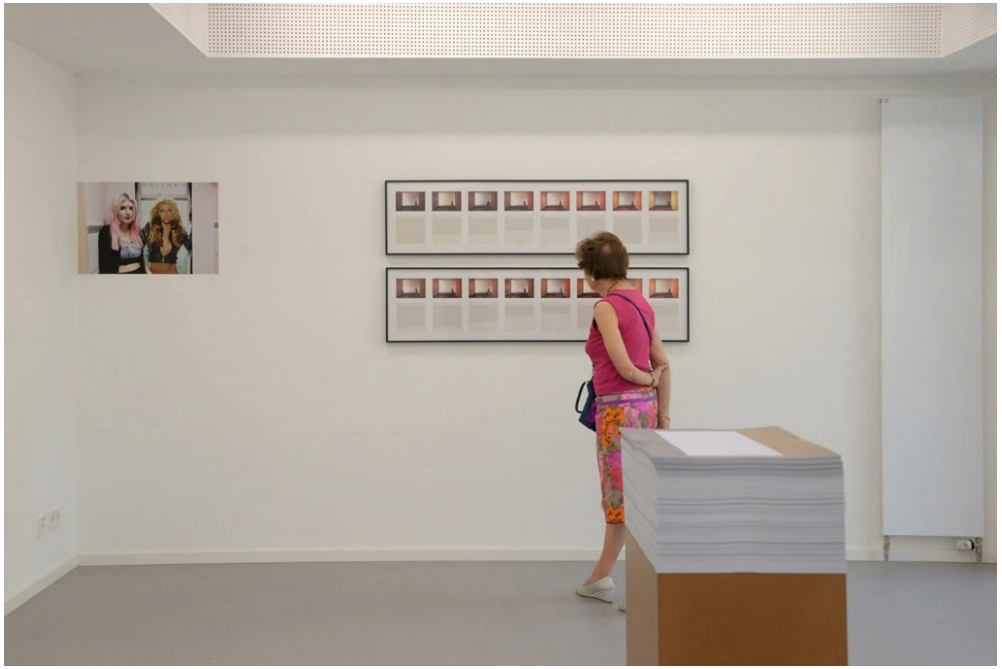
접힌 연속면을 따라 놓인 사진들.

버스 여행을 사진과 승객의 관찰 기록으로 담는다. 아코디언형 책은 이어지는 띠 위에서 글과 이미지를 번갈아 펼친다. 일상적 이동의 한 구간은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며 바라보고 듣는 구체적인 경험의 기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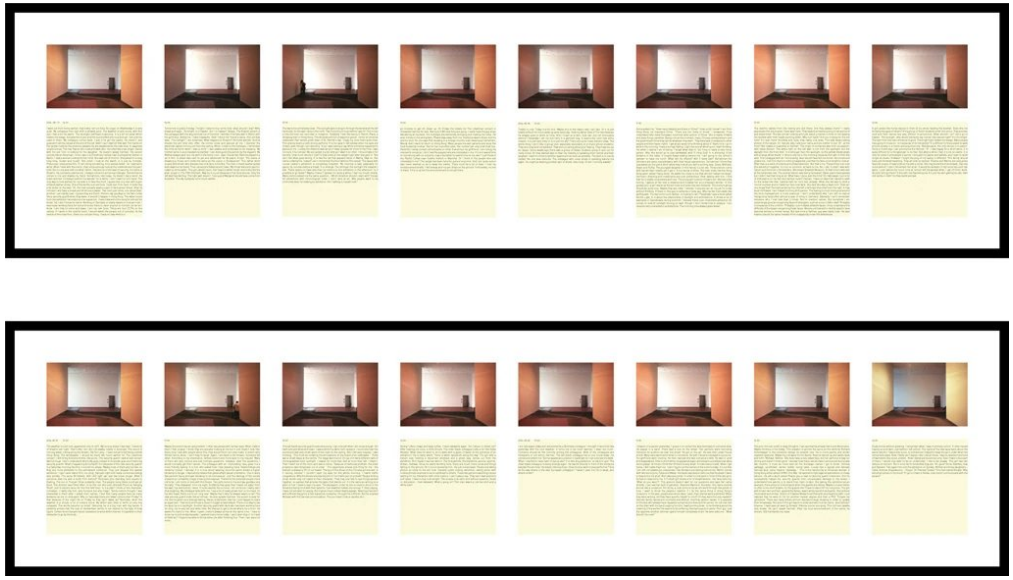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루드비히 미술관을 위한 업무 보고서

2014 | 사진과 텍스트 | 알루미늄 디본드에 람다 프린트, 액자 2점



사진과 텍스트 작업의 전시 설치 전경.



두 점으로 구성된 액자 속 연속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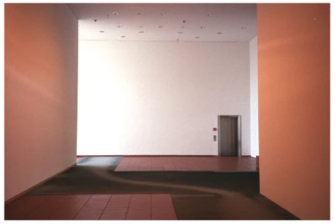
루드비히 미술관의 시간제 퍼포머로 전시 입구에 서서 관객의 이름을 묻고 큰 소리로 알리는 일을 했다. 네 시간의 근무는 시간을 강렬하게 경험하는 상황이 되었다. 변하는 빛의 사진과 관찰 기록은 유급 노동의 시간을 재고 나누고 견디려는 시도를 담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루드비히 미술관을 위한 업무 보고서

보고서 세부

2014년 6월 22일 | 10:00 / 11:00



2014-06-22
10:00

I am late again today and discovered by a Burmese colleague. I thought it would be like yesterday with the cool weather. It turns out to be much warmer. I wear too much. Cornelios should be the minority among the colleagues. Most of the colleagues are not German. The tall black colleague is in a nice mood today. He comes and greets me. But he stands at a position in backlight so I can only see his teeth. When did I start having a habit of being late? It is like drug addiction, so hard to quit. The African colleague is being strange again. He stands directly in front of the entrance besides the ant hole. He doesn't belong there. Does he also want to be a performer? And by the way where is the Eastern European colleague? I haven't seen him for a week, and where is Adli?

2014년 6월 22일 10:00의 기록 일부.



2014-06-22
11:00

I dreamt of a person yesterday. I guess it was me but the face belonged to someone else. He played in a band. There was a bus on the street. Two persons were recruiting someone for auditioning all over the street. He got on the car. He was then under house arrest. Many nails were hammered on his stomach. He didn't die and managed to leave. His girlfriend went missing. He then realized she was someone's wife. He was grieved and disappeared. After a short while, he appeared again and became a professional table tennis player. At times I think the lift there is very small. It looks like a model. When I get home, I will make fried rice. I can't figure out the names of the visitors today. It's not that I am still not awake but I feel uneasy. Two Koreans are talking behind me. Martin comes with two blonde girls, Tubia and Meike. His facial expression tells me that he doesn't want to respond to me at all. But I was very polite. In order to look good in front of the two girls, he has to respond to me. A Turkish girl shows a lot of dissatisfaction. Her face tells me, 'What do you want?!' This grannie doesn't wait for my questions and says her name directly. I can see her lack of patience. Objective Machine. Kunstein, this name sounds almost like a sculpture. Art stone, a rock turns to be an art work through the polish of time. I want to know people's reaction if I do the same thing in Hong Kong's museums. In the past, people also wrote diary. Later their diaries were published. When they were writing, did they have a specific reader in mind? Or they were the only readers? German family names are countless and difficult. And they seldom repeat. It is different from the Chinese who always have repeated surnames but diverse first names. An old man sits on the chair with his hand cupping his chin, head down. Is he thinking about the meaning of the works? He seems to be suffering, like there are ants in his pants. Poor guy. Just the opposite, another old man opens himself completely to art. He even asks me, "What should I do now?"

2014년 6월 22일 11:00의 기록 일부.

보고서는 사진과 일기 형식의 텍스트를 나란히 놓는다. 직무가 몸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는 동안 주의는 빛과 건축, 바깥세상의 상상으로 향한다. 기관과 그 안에서 일하는 개인이 함께 드러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Interview Service Provider

2013년 시작 | 영상 설치와 인터뷰 서비스



Interview Service Provider 영상 스틸.



관객이 설치 작품을 듣는 모습.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지켜보던 사람이 질문을 제안하면 내가 그 상대를 인터뷰한다. 인터뷰 대상은 참여에 동의하지만 누가 질문을 의뢰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의뢰인은 이후 촬영된 영상에 의견을 덧붙인다. 발화와 자막은 상상한 인물과 실제 만남의 차이를 드러내며, 서비스는 두 사람을 계속 분리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itcom

2012 | 개인전 | 광저우 관찰사



사진과 텔레비전, 가구가 서로 다른 장면들을 하나의 실내에 모은다. 장소와 동물, 일상의 만남에 관한 이미지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되지 않은 채 공존한다. 방과 관객의 움직이는 주의 속에서 기억과 예감이 겹쳐진다. 기획: 앤서니 융.

Sitcom 설치 전경, 광저우 관찰사, 2012.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itcom

방 안의 사진들

2012 | 개인전 | 광저우 관찰사



전시장 벽에 설치된 사진 프린트.



책상 위에 배치된 사진과 인쇄물.

가구와 텔레비전이 하나의 환경을 만들지만 사진은 각자의 이미지를 유지한다. 전시는 사진 프린트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선과 화면에서 동시에 변하는 이미지 사이를 오간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itcom

개별 사진

2012 | 개인전 | 광저우 관찰사



Sitcom에 전시된 사진, 2012.



Sitcom에 전시된 사진, 2012.

동물의 우리와 비어 있는 실내는 전시 안에서 서로 다른 사진의 공간으로 만난다. 이미지들은 서로를 설명하기보다 함께 놓인 채 연상과 관객 자신의 기억이 개입할 여지를 남긴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Memoriescape

2011 | 26채널 영상 설치 | Memory Disorder, 갤러리 EXIT



26개의 영상과 슬라이드, 자막이 여러 모니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슈퍼 8 필름, 웹캠,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의 서로 다른 기록 질감이 함께 놓인다. 개인의 삶은 기억과 연상, 상상의 사건이 고정된 연대기를 따르지 않는 파편적 서사의 재료가 된다.

Memoriescape, 갤러리 EXIT, 2011. 설치 전경. 사진 제공: 갤러리 EXIT.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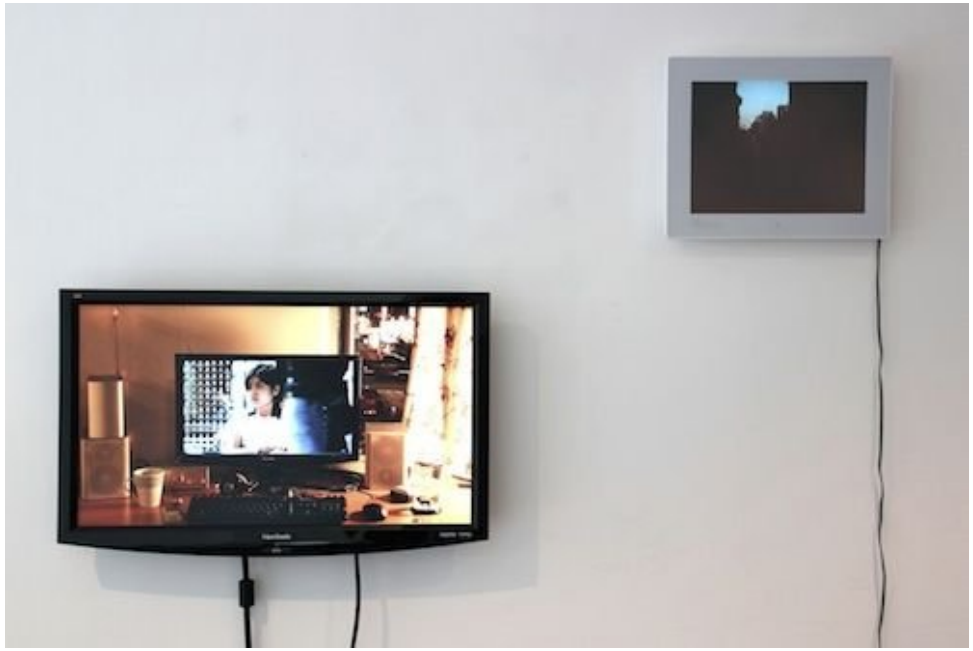
Memoriescape

서로 다른 크기의 기억

2011 | 26채널 영상 설치 | Memory Disorder, 갤러리 EXIT



투사 영상과 모니터, 노출된 연결선. 사진 제공: 갤러리 EX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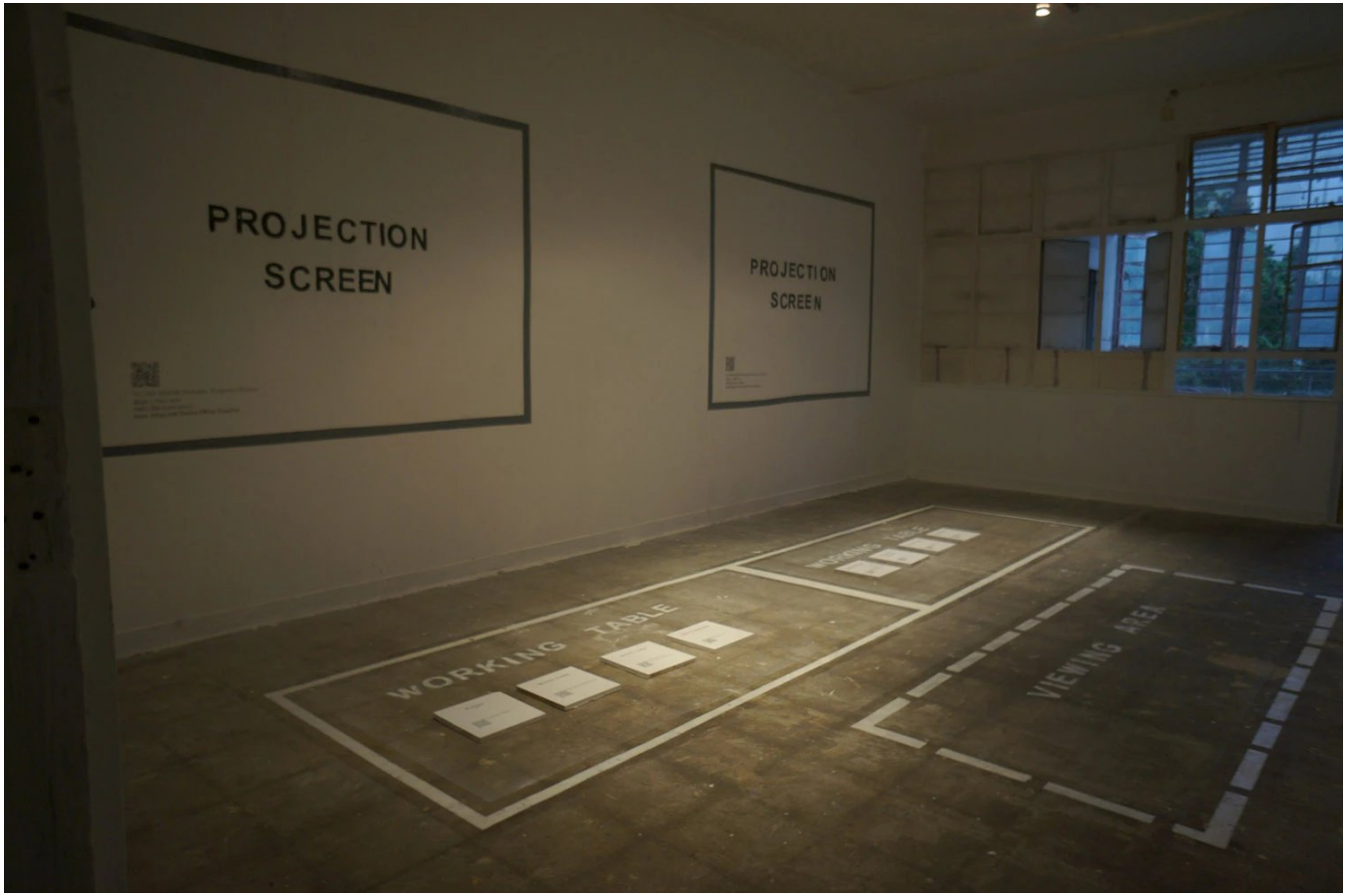
서로 다른 이미지와 화면 형식이 함께 놓인다. 사진 제공: 갤러리 EXIT.

서로 다른 촬영 기술과 화면 크기가 하나의 방에 놓인다. 관객은 한 편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대신, 높이와 거리가 다른 이미지의 파편들을 만난다. 설치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와 함께 보이는지가 달라진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Writing to Reach You

2011 | 웬디 응과의 공동 설치 | Detour: Useless, 홍콩



웬디 응과 I'm almost there.라는 이름으로 협업하며 소통의 어려움을 재료로 삼았다. 그려진 윤곽, 사양, QR 코드, 디지털 영상으로 상상의 전시를 묘사한다. 메시지가 타인에게 얼마나 닿는지, 기술로 늘어난 소통의 양이 그 질과 어떤 관계인지 질문한다.

Writing to Reach You 전시 전경. 웬디 응과의 공동 작업.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tolen Times for Sale

2008-2010 | 영상 설치 및 퍼포먼스



테이블과 카탈로그, 투사 영상으로 구성한 훔친 시간 판매 설치.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낯선 사람들의 이동에서 몇 초를 가져온다. 지연된 시간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판매되고, 관객은 한 구간을 구입해 디스크로 가져갈 수 있다.

길이와 등장인물, 반응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판매된 구간은 초와 가격을 적은 안내문으로 대체되며, 팔린 시간과 팔리지 않은 시간이 함께 재생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tolen Times for Sale

거래되는 시간

훔친 시간 판매 | 2008-2010



각 시간 구간과 가격을 기록한 카탈로그.



기록된 엘리베이터 이동의 영상 스틸.



Stolen Times for Sale의 DVD 패키지.

카탈로그는 지연된 시간마다 기록과 가격을 붙인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의 작은 행동이 시간을 가져오는 사람, 이동이 지연된 사람들, 이후 영상을 구입하는 관객 사이의 관계로 바뀐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Working in Hollywood

2010 | 2채널 영상, 무음 | 43분



영상 스틸: 골목의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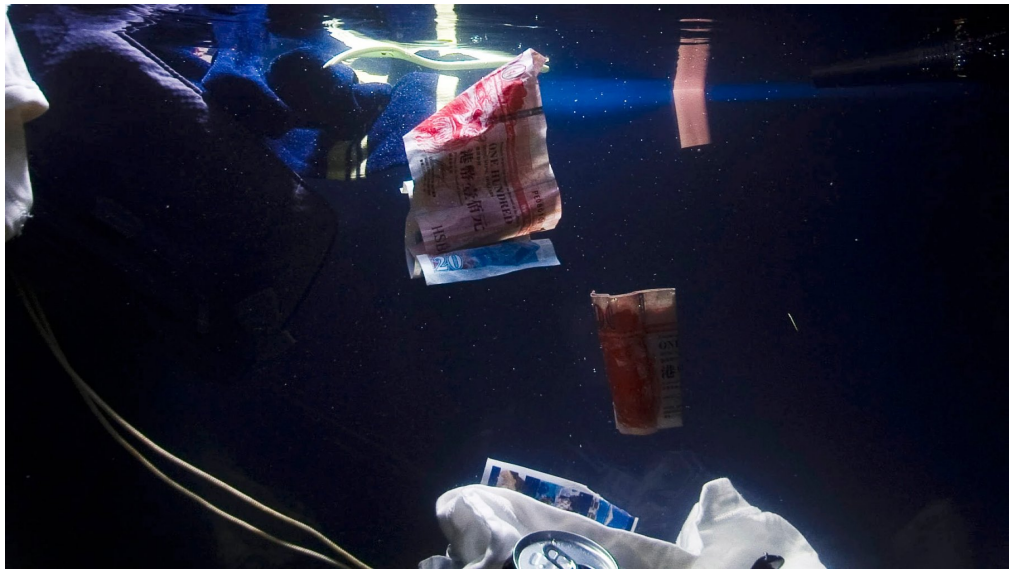
영상 스틸: 할리우드 로드 계단 곁에서 쉬는 노동자들.

홍콩 할리우드 로드에서 일하며 골목의 숨은 장소에서 쉬고,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을 자주 보았다. 그 순간들은 노동의 하루 안에 있는 작은 자유처럼 느껴졌다. 2채널 작업은 공공의 거리 속 사적 시간과 공간, 일하는 삶과 상상하는 삶 사이의 거리를 살펴본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Towards the Air

2010 | 디지털 영상, 컬러, 사운드 | 15분 30초



Towards the Air 영상 스틸.



영상의 수중 장면에 떠 있는 사물들.

물에 가라앉은 항공기 승객의 소지품이 다시 공중으로 불려 나온다. 떠 있는 사물과 역전된 움직임은 추락과 상실의 익숙한 방향을 중단한다. 브라이언 이노의 Music for Airports에 응답하는 상영 프로그램에서 로가언의 동명 음악과 함께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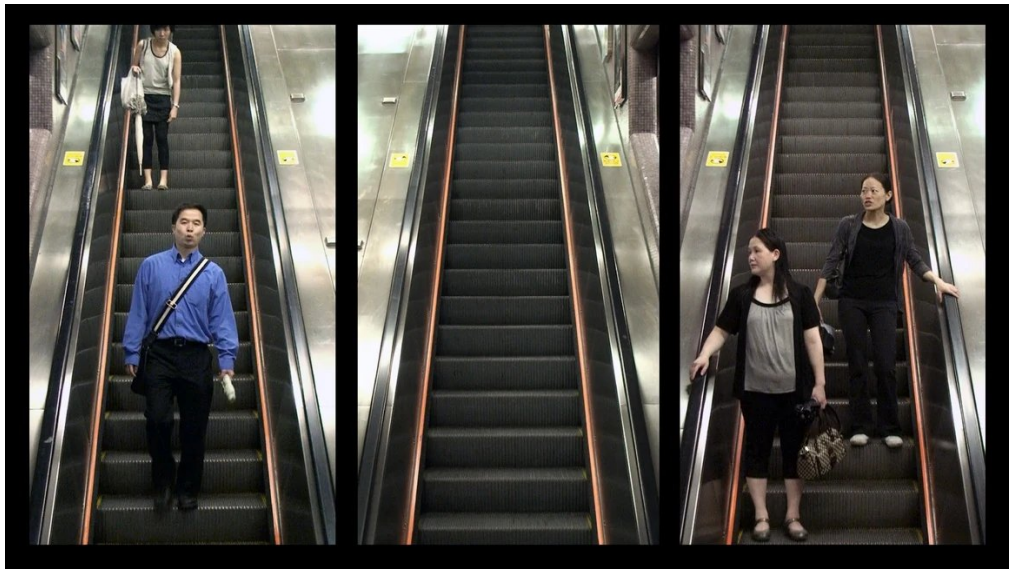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Upon the Escalator

2009 | 디지털 영상 | 13분 50초



Upon the Escalator 합성 영상 스틸.



세 부분으로 구성된 화면의 또 다른 순간.

에스컬레이터를 오가는 사람들을 세 개의 인접한 화면으로 재구성한다. 서로 다른 때에 촬영한 움직임이 만나거나 서로 바라보고 같은 공간을 스치는 듯 보인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편집으로 관계를 만들며, 카메라와 관객은 그 이야기에서 거리를 유지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In Some Seconds

2009 | 2채널 영상 설치 | 16분 44초 / 16분 41초



영상 스틸: 콘크리트 기둥 옆의 행인.



영상 스틸: 붉은 재킷을 입은 여성.

자주 이용하던 노선의 버스에서, 버스가 서행하거나 멈추는 짧은 동안 길 위의 사람들을 촬영했다. 순서와 길이가 조금 다른 두 영상을 서로 마주 보는 스크린에 투사한다. 관객은 불과 몇 초간 이어지는 움직이는 만남 사이의 좁은 통로에 놓인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Waiting

2009 | 디지털 영상 | 43분



Waiting 설치 전경, 홍콩, 2009.



Waiting 영상 스틸.

홍콩 타임스 스퀘어의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사람들을 기다리며 촬영했다. 편집된 기록은 기다림을 감정과 불확실성, 몸으로 겪는 지속시간으로 드러낸다. 효율이 시간의 주된 척도가 되고 인내가 어려워질 때 무엇이 생기는지를 묻는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onymity

2008 | 첫 개인전 | 아티스트 코뮨, 홍콩



첫 개인전은 엘리베이터를 지나는 낯선 사람, 온라인에서의 만남, 신진 작가가 미술계에 진입하며 맺는 관계를 연결한다. 사진, 영상, 설치, 퍼포먼스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경험 사이의 긴장을 살펴본다. 기획: 수지 로 와이샨.

Anonymity 개막, 아티스트 코뮨, 홍콩, 2008.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nonymity

개막 퍼포먼스

2008 | 카메라 생중계와 벽면 투사



음식을 먹는 손님의 모습을 실시간 투사한 장면, 2008.

개막식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카메라를 든 사람이 이들을 촬영했다. 영상은 커다란 벽에 실시간으로 투사되어, 개막 자체가 바라보고 바라보이는 상황이 되었다. 이 퍼포먼스는 같은 전시의 명함 수집과 서명 작업 Art Map과 별개의 작품이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Art Map

2008년 시작 | 명함, 전시 패널, 서명



Art Map 설치 전경, Anonymity, 2008.



명함 주인이 자신의 명함 옆에 서명하는 모습.

각 패널은 하나의 미술 행사를 나타내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명함을 모은다. 당사자에게 받은 명함 한 장 외에는 컬러 복사본을 사용한다. 전시 때에는 명함의 주인에게 해당 위치에 서명을 부탁한다. 사회적 만남은 작가가 미술계 안에서 자리를 만들어 가는 물질적 기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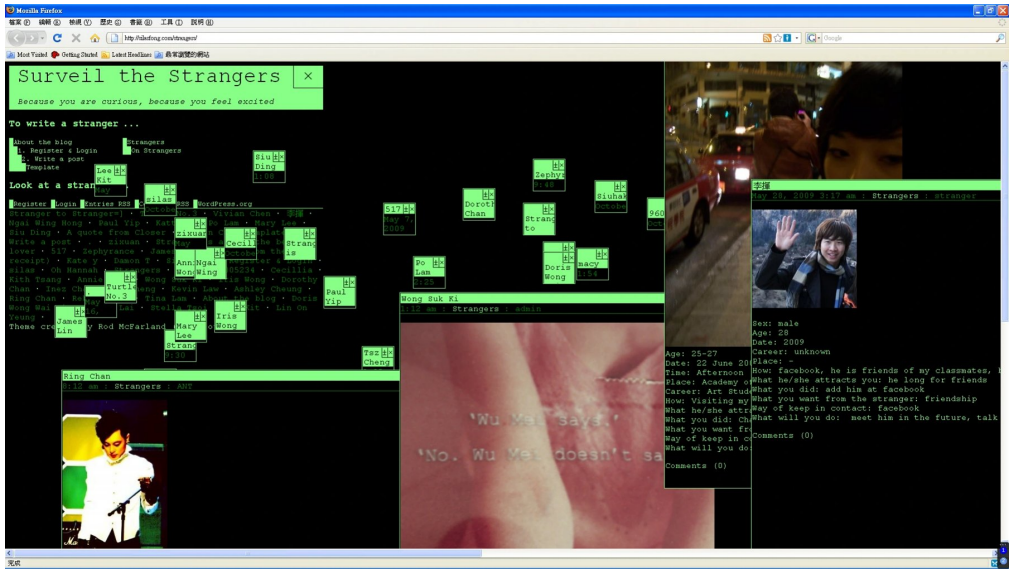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Surveil the Strangers

2008 | 블로그와 컴퓨터 설치



컴퓨터 설치를 사용하는 관객, 2008.



작가의 기록 자료에서 복원한 원래 블로그 화면.

블로그와 전시장 컴퓨터는 낯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공개적인 초대로 만든다. 관객에게 바라보고 공유하도록 권하는 서비스의 말투를 사용한다. 바라보기와 뒤따르기, 누군가를 안다는 것 사이의 거리, 온라인에서 타인의 삶을 볼 수 있다는 전제를 질문한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When the Door Opens

2008 | 디지털 영상, 컬러, 사운드 | 7분 50초



When the Door Opens 영상 스틸, 2008.

홍콩 MTR 승강장의 문을 긴 숏으로 촬영하며 승객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관찰한다. 몸의 흐름은 공간의 밀도와 지각되는 크기를 바꾼다. 같은 프레임이 붐비고 비워지고, 연결되고 나뉘며 일상적 이동이 서로 다른 시간 감각을 만든다.

더 많은 이미지와 프로젝트 소개

작가 약력과 연락처

2026년 11월

실라스 퐁은 홍콩 출신으로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교육자다. 설치, 참여형 작업, 퍼포먼스, 사진, 출판, 영상 등 여러 매체를 사용한다. 2017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퀼른 미디어예술대학 미디어·순수미술 과정(2013-2015), 홍콩중문대학교 미술학 석사(2010-2012), 홍콩침례대학교 시각예술학 학사(2005-2008) 과정을 이수했다.

info@silasfong.com

silasfong.com

Instagram: @silasfong

전체 이력과 비평문: silasfong.com

주요 발표

2026 사부작 레지던시, 양평

2025 키친 노트, 대추무파인아트, 강릉

2024 빵학과, 갤러리 조선, 서울

2024 나의 벗 나의 집,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3 SAD 키친: Oi! 가이드, Oi!, 홍콩

2022 내일의 미술가들, 청주시립미술관

2020 SAD 예술가직업훈련학교,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9 SAD Info Days, 서울시립 금천예술공장

2018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비디오태지

2016 Piccolominist. 316, 주홍콩독일문화원

2013 Move on Asia, ZKM, 카를스루에

2012 Hong Kong Eye, 사치 갤러리, 런던

2010 리버풀 비엔날레: Media Landscape

2008 Anonymity, 아티스트 커뮨, 홍콩

작품 © 실라스 퐁. 작가의 프로젝트 아카이브에서 선별한 기록. 세부 크레딧은 프로젝트 웹페이지에 수록.